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7

충현의 만나

2008

가정예배 역대하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7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하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마 4:17)라는 참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마 16:24) 담대한 믿음(창 15:1)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 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복음적인 사역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충만케 하소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악한 영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물질과 생명을 담보로 위협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약속하며 유혹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라.”며 신앙생활의 타협을 유도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주의 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죄 사함의 은총으로 가득한 보혈의 제단으로 나아가십시오.(히 13:10)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충만케 하소서!

2008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애굽 왕 시삭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것은 르호보암과 온 유다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에 애굽의 침공을 대비하여 남부 지역에 많은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버리시자 그 모든 요새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애굽의 강력한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심령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패망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 127:1)

하나님께서서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자만을 지키십니다. (1~12절) 인간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에게 어찌 죄악이 틈 타겠습니까?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찢는 자만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이며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대하 12:6)

기도 제목 ① 오직 주님만을 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가 열왕기에는 악한 왕으로 이 장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연설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타락한 종교성을 공박하는 대신 남왕국 유다의 온전한 제사와 율법준수를 언급합니다.(1~12절) 이러한 신앙적 입장을 견지한 아비야는 전력 면에서 열세였음에도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13~22절) 많은 군사, 훌륭한 작전, 탁월한 무기는 전쟁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그것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삼상 17:47)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대적 마귀와 맞서야 하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두움의 권세자 곧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은총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보혈만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대하 13:18)

기도 제목 ①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가 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사는 통치 초기에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다에 있는 각종 우상을 철폐하고(1~5절),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1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며(6~8절), 구스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크나큰 승리를 경험합니다.(9~15절)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의 탁월한 통치력이나, 매끄러운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유다에 있는 죄악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 연단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깨뜨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에도 참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 내면의 적은 불신과 우상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십시오. 믿음의 실천과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대하 14:5)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람 아사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만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1~7절)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라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또 한번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남아 있던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한편(8~15절), 왕궁 안에서의 타락한 생활을 청산합니다.(16~19절)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첫째 조건은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 존재하는 죄악을 모두 청산하는 일입니다.

구스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아사 왕은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메시지는 더욱 온전히 순종하라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나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2절)

실로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교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의 극치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대하 15:12)

기도 제목 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전에 위기를 느낀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과 군사동맹을 맺고(1~6절),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7~10절)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11~14절) 아사 왕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길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맛보는 실패와 좌절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만이 멸망의 앞잡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은 영적 실패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실패와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처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경이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대하 16:12)

기도 제목 ①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대체로 선정을 베풀었던 여호사밧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의 초기 행적을 좇아 유다 내에 존재하는 우상을 척결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1~6절) 여호사밧은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고(7~9절),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후 그 힘을 이용해 강력한 국방체제를 형성합니다.(10~19절) 진실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인격이나 공동체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은 언제나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참 신앙인은 단순히 죄를 청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삶을 돌이키는 죄 청산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모순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던 분열된 두 마음을 청산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거듭난 자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와 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대하 17:6)

기도 제목 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과 감사로 가득한 성찬식과 맥추감시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사밧의 통치기간 중 크나큰 오점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입니다. 여호사밧은 민족의 단절을 피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선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1~3절) 그리고 이 동맹 때문에 아합 왕과 함께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키고 오직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따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추진할 때에만 참된 일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십자가만이 구속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참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4~27절) 진리가 다수(多數)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수 군중의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휩쓸리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적이나 테이프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가르침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은총의 자녀된 삶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찌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 하더라”(대하 18:4)

기도 제목 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새벽을 깨우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함으로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선견자 예후를 보내어 크게 책망하십니다.(2절)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칭찬을 들을 만한 선한 일도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점입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잘못된 점과 옳은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에 따라 각기 책망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악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회개를 경험한 여호사밧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4절) 둘째는, 재판관들에게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6절) 또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들과 재판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여 섬기는 사람들,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대하 19:9)

기도 제목 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②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1절) 여호사밧은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도록 했습니다.(3절) 여호사밧이 기도를 통해 의지했던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6절)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넉넉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7절) 이렇듯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야하시엘을 통하여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14~18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15절) 이에 여호사밧은 힘을 얻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20절) 전쟁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능력도 없었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공훈과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을 품어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대하 20:30)

기도 제목 ①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의 악정 때문에 유다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여호람의 통치를 가리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땅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6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7절) 여호람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아주지 못할 심각한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공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돔과 립나의 반역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계속합니다. 백성들까지 미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을 치셨습니다. 여호람은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19절) 그의 고통과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죽음에 백성들이 ‘아끼는 자 없이’(20절) 장사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최후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두 다 비참한 죽음, 곧 지옥의 영원한 사망 속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대하 21:18)

기도 제목 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
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다의 최대 위기는 아하시야와 아달라의 폭정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가리켜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 (4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합의 집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야 역시 백성을 패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가 뿌린 악행의 씨앗은 그가 죽은 후 그의 모친 아달라를 통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요"(롬 6:23)라는 말씀처럼 아하시야의 죄악으로 패망이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꾀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실 터인데,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과 모략에 의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달라는 유다 왕가의 씨를 진멸하였고 이후 육 년 동안 다윗의 왕국을 바알과 아세라 신의 왕국으로 변질시켜 아달라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은밀하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에 의해서 극적인 구출을 받아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을 받아 나중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총의 씨앗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씨앗인 예수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대하 22:12)

기도 제목 ① 죄악된 세상에서도 늘 예수님만 찾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아다는 아달라의 폭정에서 유다를 구하기 위해 백부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숨겨 놓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2~3절)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왕자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며 율법책을 줍니다.(11절) 왕이 된 요아스는 타락한 나라를 여호와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 회복과 개혁과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1~22장을 읽으며 여호와와의 말씀이 희미해진 세상의 혼란과 폭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개혁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여호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 그들이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16절) 둘째로, 바알의당을 헐파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며, 바알의 제사장인 맛단을 죽였습니다.(17절) 셋째로, 무너진 성전예배를 모세의 율법대로 회복시켰습니다.(18~20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자, 온 국민은 크게 즐거워하고 성 중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21절) 우리의 마음과 삶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에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호아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 지라”(대하 23:16)

기도 제목 ① 주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요아스가 처음으로 개혁을 시도한 일은 성전수리였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7절) 그러나 요아스의 마음만 급했을 뿐, 실무자인 레위인들은 그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5절)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수리를 재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관심이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9절)고 명령합니다. 요아스가 추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정책을 펼치자 여호와와의 전은 수리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14절) 겉으로 볼 때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요아스의 열심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선하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립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여호와와의 전을 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폭정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망령된 행동을 책망하자 '여호와와의 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자행합니다.(20~21절)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요아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사용하여 징계하셨습니다.(23절)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대하 24:10)

기도 제목 ① 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게 잡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먼저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후에 자신의 부친을 모반하여 살해했던 자들을 처형합니다.(3절) 이때 아마샤는 반역자들의 목숨만 빼앗았을 뿐,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4절) 당대의 관습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행하려는 아마샤의 믿음이 엿보입니다. 이런 아마샤도 잘못 판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돈을 주고 군대를 빌려온 것입니다. 이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유다 백성들만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명하십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친히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아마샤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아마샤를 책망하셨습니다.(15절) 아마샤를 옳은 길로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고, 에돔의 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을 드셨고, 마침내 아마샤는 모반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27절) 이런 실패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부인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대하 25:19)

기도 제목 ①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최후 결말을 보게 됩니다. 웃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참한 생애를 보았습니다. 웃시야는 그러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5절)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자 웃시야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지만, 웃시야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대적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서 성 위에서 화살과 무거운 돌이 멀리 날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자 웃시야의 마음은 극도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오만불손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셨고, 나병환자가 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강성하여지매’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공과 부와 명예가 찾아올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순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대하 26:1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요담 왕은 웃시아가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하여 나병환자가 되었습니다. 요담 왕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2절) 그는 하나님의 전에 한번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요담 왕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2절)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5:35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산당을 없애라”(민 33:52~5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왕의 권위를 적극 사용하여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음란하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요담 왕 자신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아 우상을 섬기는 불씨가 그 나라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산당과 같은 세상적인 우상의 불씨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대하 27:6)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보며 자랐지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1절)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를 불로 태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셨습니다.(19절) 유다를 낮추시자 주변의 아람,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법도 한데, 아하스 왕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가 것처럼 믿었던 앗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며 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한 범죄로 치달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22절) 그는 앗수르가 섬기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훼파하고 문들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하스 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곤고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곤고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대하 28:22)

기도 제목 ① 곤고할 때에 범죄치 말고 회개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히스기야는 열조의 범죄를 고백합니다.(6~9절)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10절)라고 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히스기야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5절)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레위사람들을 세워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뒤를 이어 감사제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찬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36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대하 29:2)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금요구역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원들이 금요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오면 잊혀졌던 의무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을 공포하였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본래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는 1월 14일 저녁부터이지만 한 달을 늦추어 2월 14일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그 날짜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민 9:10~11)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킨 후에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습니다.(23절)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26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면 드린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온전한 순종과 신실한 헌신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칠 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칠 일을 즐겁게 지켰더라”(대하 30:23)

기도 제목 ① 주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열심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된 후 큰 변화를 보입니다. 그들은 여러 성읍에 있던 우상을 깨뜨리며 찍어버렸습니다. 또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을 간음하듯 섬기게 만든 불씨였는데, 그것을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깨뜨려 버립니다. 이는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있으며 날마다 죄를 버리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죄와 우상을 미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의 반차를 정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종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에게 필요한 쓸 것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왕의 명령에 백성들은 모든 소산의 처음 것과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레위사람들을 세워 이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알맞게 나눠주도록 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합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대하 31:20)

기도 제목 ①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있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강대국 앓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앓수르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유다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8절 참조)고 말합니다. 하지만 앓수르 왕은 큰 소리를 치며 히스기야를 위협하였습니다. “만일 항복하면 이곳과 같은 좋은 땅에 옮겨 주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 그 어떤 나라도 앓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10~15절 참조) 이런 시련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사 앓수르의 대군 185,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 왕이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벨론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주며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자 하사 시험하셨더라”(31절)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 앞에서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으로 치우쳤습니다. 예루살렘과 왕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적국의 침략이라는 시련을 믿음과 기도로 이겼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후에 시험 앞에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대하 32:25)

기도 제목 ① 시험과 시련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이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25절)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27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믿으며, 자신의 관점에 맞추기 위하여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요 1:12) 예수님은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말씀을 연구 해석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

기도 제목 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38절) 이들은 출애굽할 때의 표적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지만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39절)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죄 값으로 인한 멸망의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삶을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표적임을 전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 12:40)

기도 제목 ①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씨앗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 씨앗 중에 겨자씨는 가장 작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31절)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작고 불품이 없는 이 작은 씨앗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한 알의 씨앗은 힘이 없어 작은 충격에도 사라져 버릴 것 같지만 자라면서 무성해지며 나중에는 새들이 찾아 와서 머물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불품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할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해 버린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자라나고 있으며 나중에는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겨자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추진 중에 있는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29~30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풍랑을 의식하면서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 늘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승리의 순간을 맛보지만 곧 처참한 실패로 인하여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물질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의 환경은 두려움을 주어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31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약 1:6) 의심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약속과 은혜의 언약을 믿고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하며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쓴 뿌리를 모두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31)

기도 제목 ①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계네사렛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문제삼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전통을 따라 구전(口傳)되어 오던 원칙들로서 그들의 종교 생활에 절대적 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순명료한 질문형태로 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3절)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였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세운 그 어떠한 전통도 말씀의 권위와 동일시되거나 그 전통이 말씀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삶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의 결정적 차이는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담겨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8~9절) 성도의 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롬 1:9) 우리 주님은 외형적인 그 어떤 충성보다 성도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 곁을 끊임없이 맴돌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로서 오는 그 어떤 표적도 그들의 불신앙과 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4절) 그들이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갈수록 죄 가운데 부패해져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고전 1:18)

주님은 제자들이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15절) 이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8절)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임을 깨닫게 합니다. 기초없는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바른 신앙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 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신앙고백이 있는 지 몇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주님은 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분명히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 16:28)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산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9절)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풀이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죽으실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실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죽으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는 제자들 또한 그 길을 가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일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단순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마 17: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인가?' 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차분히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4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 주님의 제자는 회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든 교만과 자랑, 어리석은 경쟁심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갈 5:24)

베드로는 죄 범한 형제에 대한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용서하는 것, 즉 한없는 용서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형제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잃지 말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한없는 용서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32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갇아도 영원히 못다 갚을 죄의 빛과 용서의 빛을 동시에 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사람에게에는 없는 것입니다.(요일 4:20)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4)

기도 제목 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겸손히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② 충현복지관을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24절)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의 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골 3:2~3) 주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영적 부자였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부자와 반대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어린 아이입니다.(마 5:3, 18:3)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주님께 얻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27절)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자기 자랑과 공로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드린 헌신에 합당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마 18:1)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열두 보좌에 앉을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28절)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누구나 그에 합당한 복(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사람이 많다.”라는 주님의 경고에 귀기울여야 합니다.(30절) 먼저 믿은 자로서 그동안의 자신의 희생과 수고의 공력만을 쉼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지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주님은 그곳에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습니다.(막 10:32)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힘차게 십자가를 향해 전진해 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뜻에 향한 지극한 헌신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28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림과 동시에, 주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상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닥칠 환난을 적절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지혜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예상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눅 14:25~33)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광의 보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정과 욕심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21절)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히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바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의 몫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23절)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는 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기도 제목 ① 세상의 넓은 길보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7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 보혈로
부흥케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부흥케 하소서

주의 만찬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고정된 시선은 이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빛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혈로 충만한 제단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영의 눈을 뜨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신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704	고전 11:23~32	주의 만찬과 부흥	주의 만찬이 주시는 참 부흥을 경험하자
0711	히 13:10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십자가 보혈이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자
0718	눅 23:34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자
0725	마 16:18~19	교회의 영광과 승리	보혈에 기초한 영광과 승리의 교회를 세우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주의 만찬과 부흥

| 초 점 |

주의 만찬이 주시는 참 부흥을 경험하자

| 찬 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3~32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³¹⁾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³²⁾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눅 22:19

※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부흥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특별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의 만찬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전 11:23~25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하라 하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몸과 피는 그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 나의 삶에 십자가는 _____이다.

고전 1:18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는 "다 이루었다"였습니다.(요 19:30)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 성찬과 관련된 고린도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때 문제점이나 걸림돌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즉시 그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 고린도전서 11:27~32의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주의 만찬은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을 먹으며 이 을 마실 때마다 주의 을
그가 오실 때까지 것이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임을 깨닫도록 죄인들을 예수님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행 1:8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는 복음전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매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위를 바라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 밑줄 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 26:29 /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미] _____

예수님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수 건축하신 천국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요 14:2

9월 4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최상의 미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요 1:12

히 13:20

분주한 일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은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주의 만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곧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만찬이 주시는 참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제5차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2과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 초점 |

십자가 보혈이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자

| 찬송 |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 본문 | 히브리서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
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브리서 13장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히 13:10 / 우리에게 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 구약성경에 기록된 제단(祭壇, Altar)의 보편적인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성경 및 성경사전 참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제단을 통해 어떠한 영적 은혜들이 있는지 발견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레 6:1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신의 행위로 제단에 번제로 바칠 특정한 동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두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히 10:12~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제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영적 제단 앞에는 오직 신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 10:19~20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_____ 함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_____ 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제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 14:13~14)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창 22:5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 예배(공예배 및 집회)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나 인자하신 조부모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갈보리에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분명히 의식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압도당하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시 84:1~2

시 84:10 /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_____ 쫓사오니

죄를 씻는 제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출 39:38~39

구약성경을 보면 중재와 희생제물에 쓰는 금 제단과 놋 제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없애셨습니다.

말 2:13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요 희생제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줍니다.

롬 6:23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마 5:23~24) 이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일 1:9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제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 22:17

※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제단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창조가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오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몸소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주셨고, 그 다음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피 즉 십자가 보혈이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이 주신 제단이 있음을 진실로 감사하게 하소서
2.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을 통하여 은혜충만케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3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 초 점 |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자

| 찬 송 |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사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 본 문 | 누가복음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뉘 제비 뽑을새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집중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에 초점이 있는 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부흥의 모델입니다. 초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 현대 교회의 모습을 초대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를 오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참혹한 갈보리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요약한 뒤 본문말씀(23:34)을 묵상해 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음소리와 피냄새로 진동하는 갈보리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눅 23:34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_____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요 14:1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말세를 예고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한 일상생활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좇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대하 7:14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눅 6:12) 부흥의 기초는 언제나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 하신 말씀은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눅 23:34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_____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기도는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주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행 2:38

행 11:18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십니다.

골 1:14

죄 사함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들을

예수님은 “저들을”이라는 말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눅 23:34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_____ 사하여 주옵소서 자
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
비 뽑을새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용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묵은 감정을 감추어 둔 채 아
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결국 이 묵은 감정 때문에 우리는 십
자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골 3:13

※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녀)를 용서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 6:12 / 우리가 _____ 우리 죄를
사하여 주사옵고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불편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을 내려놓고 회
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나 일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용서는 어울리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눅 17:3

고후 2:10

오늘날 아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단지 수적인 증가를 의미할 뿐입니다. 숫자는 부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부흥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2.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을 좇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교회의 영광과 승리

| 초점 |

보혈에 기초한 영광과 승리의 교회를 세우자

| 찬송 |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본문 | 마태복음 16:18~19

⁽¹⁸⁾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¹⁹⁾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
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만큼 영광과 승리로 가득 찬 곳도, 또한 교회만큼 잘못 알려진 곳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교회에 대해 말할 때 교회 건물 아니면 웅장한 교회음악이나 역량 있는 목사, 근사한 찬양대 또는 많은 교인 수 등에 대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정의해 보십시오.

- 교회는 _____ 이다.

마 16:18~19

교회는 이 땅에서 거듭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를 경시했거나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 밑줄 친 '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엡 1:22~23 /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 1:18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큼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엡 5:25 /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_____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마 16:18 /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가 이 반석 위에 ☐
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요 설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히 12:2

교회의 내부 설계 역시 예수님의 권한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고전 12:28

예수님은 교회의 평가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자신의 피 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행 20:28

고전 3:16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겨질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상급입니다.

살전 4:16~17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_____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벧후 3:10,12~13 / 그러나 _____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_____ 드러나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_____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_____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의 미래만큼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드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엡 5:27

골 1:25 / 내가 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을 따라 하나님의 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 진실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증하시기에 교회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행 9:31

마 16:19 /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_____
 하늘에서도 _____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_____ 하늘에서도
 _____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교회를 교육센터나 오락장소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혈에 기초한 영광과 승리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충현교회가 그리스도에 기초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2.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18 음주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48:38 음본(74))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을 나눠 제비 뽑새
(누가복음 23:34)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집중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에 초점이 있는 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로 인해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관원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일에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부흥의 모델입니다. 초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갖가지 흥미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흥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채찍질, 가시 면류관, 울음소리, 비명소리,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인들 등등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보다 더 사악한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혼돈 그 자체였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은 그 거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이 모습에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 황무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전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예고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기름 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은 여전히 분주한 일상생활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좇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흥의 기초는 언제나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지금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회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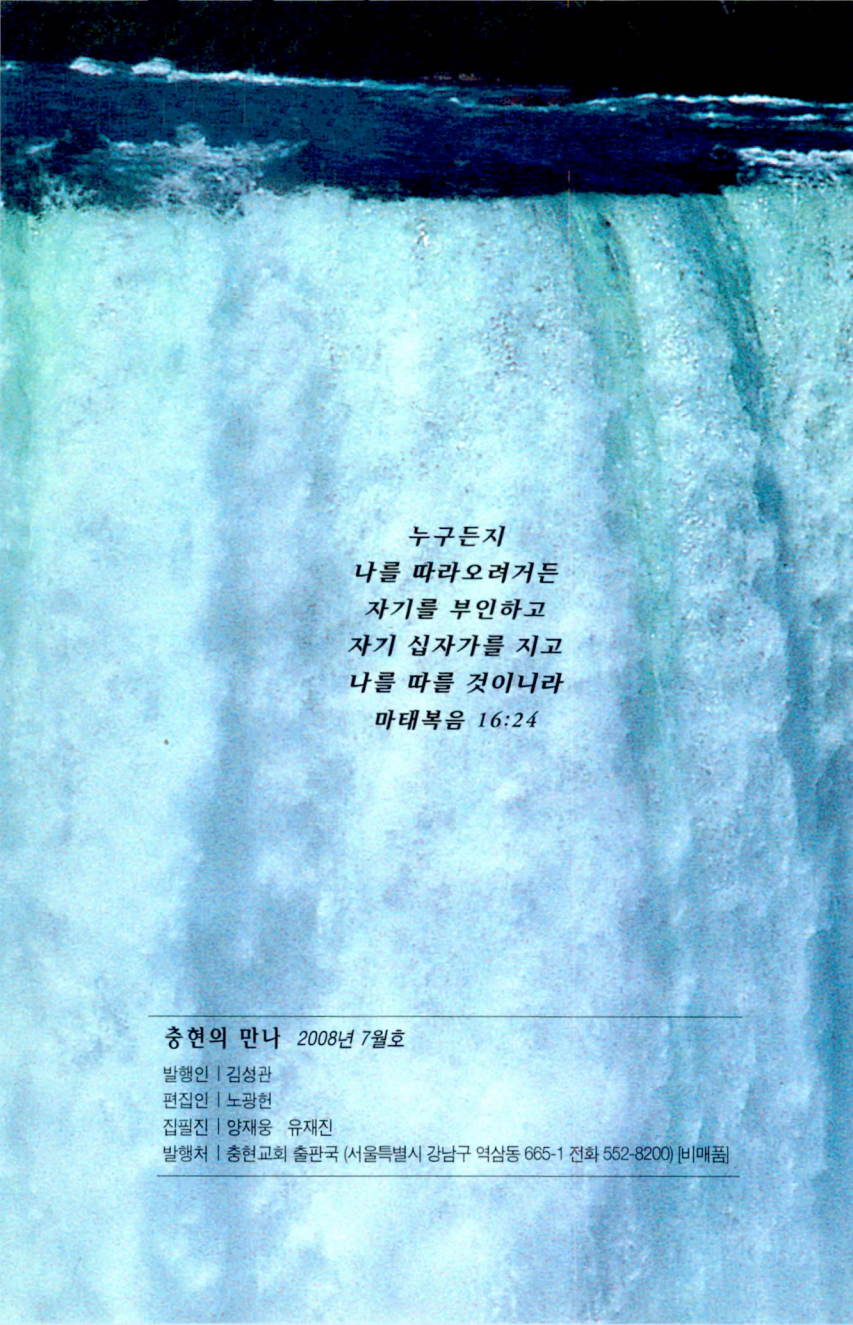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 하신 말씀은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기도는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메시지는 현대 교회와 확연히 다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듣고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한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가장 좋은 소식이며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들을

예수님은 “저들을”이라는 말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용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묵은 감정을 감추어 둔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사소한 원망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신자들, 가족, 친구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들로 인해 교회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디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 6:12)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부당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오늘날 아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단지 수적인 증가를 의미할 뿐입니다. 숫자는 부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7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